

<리포트>

自由中國 고무工業의 新動向

~ 動타界亂戰相 深刻 ~

新規메이커 3社의 進出로 自由中國의 自動車타이어 業界는 經濟擴大를 反映해서 激增하는 自動車登錄臺數에 支撐되어 오즈음 各社 共히 捲生産으로 移行하고 있음은 一般에 알려져 있으나 대만의 自動車타이어의 需要가 今後에도 크게 伸張될 것이 期待되는 點으로해서 세르이 3社가 自動車타이어의 生産에 着手했으므로 앞으로 亂戰이 不可避할 것이라고 보는 傾向이 많다. 即 대만의 타이어 메이커는 日本의 橫濱 고무와 技術提携하고 있는 南港輪胎와 브린지스톤 타이어와 技術提携하고 있는 泰豐輪胎 및 대만 굴이어(元 通用輪胎)의 3社를 손꼽을 수 있으며 그 세어는 南港 40%, 泰豐 35%, 굴이어 25%로 되어 있으나 各社 共히 捲生産을 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品貴氣色이 있을 뿐 아니라 將來에도 需要가 增大의 一路를 더듬을 것이 展望됨으로써 中一 고무(本來는 고무 벨트메이커) 正新高무(轉타, 스쿠우터어 타이어 메이커), 連新高무(轉타 스쿠우터어 타이어메이커)의 3社가 自動車타이어의 生産을 할 態度를 보이고 이미 中一 고무 등은 製品의 一部를 市販하기에 까지 이르렀으므로 既存의 메이커가 모두 設備의 増強을 着手하고 있는것(注: 南港輪胎는 臺北地區에 3萬6千坪의 土地를 買收해서 新工場을 建設하고 目下 自轉車 타이어, 오오토바이타이어를 生産하고 있으나 不遠 自動車 타이어의 生産을 新工場에서 開始할 豫定)으로 하여 美 굴이어의 進出에 依한 波瀾이 가라 앉은 臺灣自動車타이어 業界도 또다시 波瀾胎動의 樣相을 顯示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既存 3社의 브랜드는 臺灣全土에 浸透해있으므로 타이어技術은 簡單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서 現在의 타이어界의 地圖가 곧 달리 採色된다고는 生覺되지 않으나 新規메이커 3社의 進出에 依해서 벌써 스카우트合戰이 展開되고 있다고 傳해지므로 亂戰樣相은 漸次 濃化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만에 있어서의 自動車의 登錄 數는 別表와 같으며 記者가 1970년에 調査한 當時의 臺數 7萬臺의 約 2倍로 되어 있는 것이 注目된다. 또 오오토바이(스쿠우터어를 包含)의 數도 오즈음 激增하고 있으며 20年前의 日本의 交通事情을 想起케 하는 바가 있다

臺灣에 있어서의 自動車타이어의 將來에 對해서 南港輪胎公司 本社工場長(副總經理) 黃崑羅氏는 別項과 같이 말했다.

라디알 스틸은 時間問題

臺灣에 있어서의 自動車타이어의 生産의 伸張은 極히 높으나 이 伸率은 今後 當分間持續할 것이다.

經濟의 擴大로 生産活動이 活潑化하는 한便 國民所得의 向上으로 오오너어 드라이버어가 增加하므로 이에 隨伴하여 타이어의 수요는 增勢의 一途를 더듬기 때문이다. 事實 自動車는 每月 6千대 이상 오오토바이가 每月 1萬대 이상 붓고 있으나 이러한 傾向은 當分間鈍化되지 않을 것임에 타이어의 前途에 對해서는 적어도 수요에 關한限 그다지 걱정을 할 必要는 없다고 生覺한다.

그러나 捲生産을해서도 內需에 쫓겨서 輸出에 손이 안들어간다고 하는(本年 1—8月期의 自動車타이어의 輸出額은 160萬弗餘) 最近의 好況은 今後에도 持續할 것인가 하면 若干 疑念이 없을 수 없다.

資材, 勞務費가 引上—路이며 코스트 업프가 不可避함도 勿論이나 各 타이어메이커가 우리를 包含해서 設備의 増強을 着手하고 있는 外에 새로 3社가 動타生産에 臨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렇게 되면 當場은 큰 狀況의 變化가 없다 손치더라도 앞으로는 一大波瀾이 있을는지 모른다.

故로 서로 英知를 發揮하여서 過當 競爭을 排除함과 함께 特技를 發揮해서 他의 경쟁안하는 分野를 開發할 必要가 있으나 不當한 價格競爭만은 絕對로 避해야겠다고 生覺하고 있다.

또한 質問한 라디알스틸타이어의 生産인데 當地에선 즉 話題에 안올라있으나 現在 日本 其他로부터 若干輸入되고 있어서 優劣의 意識도 徐徐히 變化될 터이므로 國産化는 時間問題라고 生覺한다.

臺灣에 있어서의 自動車登錄臺數

트럭	24,352臺
버스	9,431
乘用車	67,640
라이트만	32,132
特殊車	3,949
合計	137,504

注: ① 上은 1972年末의 臺數임 ② 以外 三輪車 1,100臺 오오토바이(스쿠우터어를包含) 957,650臺가 登錄되어있다. (73, 10, 22日本고무타임즈紙)